

지역 매아리

김제시,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완주군,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신청률 98% 넘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이 하위 9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0~5세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완주군은 지난 8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받아 전체 대상 아동 4771명 중 4697명의 신청을 받아 지난 17일 기준 신청률이 98%를 넘어섰다. 또한 현재까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적합 판정이 된 아동은 98%다. 이들 가구는 오는 21일 문제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9월 말일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 달 9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완주군은 사전신청을 받은 가구들에 대해 최대한 9월 중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읍면에 인력을 증원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청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이달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전국 체전 준비 만전

전대식 김제시부시장은 지난 17일 전국체전 D-25를 앞두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실과소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김제시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남자일반부 하키 시전경기(시민운동장)를 시작으로 10월 11일부터는 남자대학부 축구경기(축구전용구장), 10월 14일부터는 세팍타크로(실내체육관), 10월 15일 근대5종 승마(용지 전주자연대부설 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장애인 체전 기간(10. 25. ~ 10. 29.)에는 펜싱 경기가 열린다.

김제시는 체전을 앞두고 하키경기가 열리는 시민운동장 등 4개 시설에 31억을 투입 개보수를 완료하고, 경기장 공인인증까지 마쳐 체전준비는 완료된 상태이다.

안대체전을 앞두고 지역아미지를 알리고 김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절호의 계기라는 인식하에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 불법 광고물 등 도시환경 정비, 숙박 및 음식점소 위생관리 및 메르스 관리대책 등 체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축사업 등 총 4건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축사업 등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에 이어 15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민숙원사업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금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경제도와, 정이로은 김제 시를 표명한 민선7기 성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박준배 김제시장이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여 이뤄낸 결실로써 국가에 산화보 달인의 진면목을 보인 사례이다.

선정 사업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축사업 5억원,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철거 및 보수사업 5억원

축산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3억원,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으로 총 4건이다.

먼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축사업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실질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체육관 등 이용시설이 집적화 된 장애인복지타운 내에 조성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석면 자재로 건축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금번 특별교부세로 이를 철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기자

또한 축산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은 축산, 부랑 성역간에 설치된 주철관이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었기에 누수와 녹물 발생이 심한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김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었기에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특별교부세 47억원을 교부받은 김제시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의원, 우리지역 출향 공직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가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역시 최대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

올해 1회 추경 7462억원 의결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는 18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된 2017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세입·세출예산현액은 8,505억원으로 8,71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8,612억원을 수납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98.8%의 수납률을 나타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4%인 7,140억원이 지출되고 968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397억원이 불용됨에 따라 2016 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38억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81억원이 감소하였다.

김제시 의회는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여 균형 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적하였으며, 결산심사 지적사항 등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만금광역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 김제시세무화관 건립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삭감하여 총액 7,462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의결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6,697억원, 기타특별회계 127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6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22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6,249억원보다 1,213억원(19.41%)이 증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에서는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연도 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차단하고 적체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세움으로써, 예산의 적실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에서 심사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령신사업단지 관리사 신축의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공모사업 선정 후, 당초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지방비의 부담률도 결정되지 않은 채 부지매입을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반대 의견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줄 것 등의 의견이 중론인 가운데 표결 결과 부결되었다.

운주현 의장은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기원하였으며, 내달 5일부터 제20회 김제지평선 축제가 시작되는 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축제 3일차인 10월 7일은 가장 가까운 유럽 러시아를 테마로 한 러시아인테이를 운영하고 러시아 공연단의 기획공연, 러시아 의상체험, 러시아 음식체험 등 러시아 문화를 직접 경험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지평선축제, 글로벌 프로그램 넘쳐나

글로벌 이슈메이킹·제기차기·쿠킹 클래스 등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위상과 글로벌 축제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글로벌 이슈메이킹 행사 등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20회를 맞이하는 동안 전통 농경문화를 테마로 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었다.

올해는 글로벌 축제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외국인과 함께하는 이슈메이킹 행사로 지평선 쌀강정 한민도기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전! 2033 글로벌 제기차기, 글로벌 지평선 쿠킹 클래스, 글로벌 벼수확 체험 등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제=곽노태기자

특히 축제 3일차인 10월 7일은 가장 가까운 유럽 러시아를 테마로 한 러시아인테이를 운영하고 러시아 공연단의 기획공연, 러시아 의상체험, 러시아 음식체험 등 러시아 문화를 직접 경험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10월 6일은 아시안테이로 일본관광객과 태국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한편 김제지평선축제는 최근 실시된 관광객이 많은 축제만족도 1위 축제에 등극하였으며,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주 행사장인 벽골제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101가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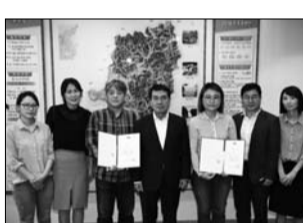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완주콩쥐팍쥐도서관' 대상

완주군 도서관 공모전 전국서 566건 응모·수상작 10개 선정

완주군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명칭공모 대상 작품으로 '완주콩쥐팍쥐도서관'이 선정됐다.

완주군은 지난 5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서혁신도시에 건립되는 도서관 명칭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566건이 접수된 가운데 이중 대상작으로 완주콩쥐팍쥐도서관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차 서류심사, 홈페이지 선호도조사, 2차 명칭공모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10개 작품을 후보군에 올렸다. 이후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에는 '완주콩쥐팍쥐도서관', 최우수상에는 '완주관빛도서관', '혁신어울림도서관', 우수상에는 '이서과학여행도서관', '이서글숲도서관', '이서어울림도서관', 장려상에는 '꿈이서원도서관', '완주미래도서관', '이서새빛도서관', '달빛에 물드는 배꽃도서관'이 선정됐다. /완주=이종복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